

익산 농산물 가공제품 인기

‘농부가 만든 유익한 만찬’ 공동브랜드로 판매 순항 중 딸기잼 등 12유형 22품목... 안정성·경쟁력 두루 갖춰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제품들이 익산 로컬푸드매장 농협하나로마트 원협마트 등에 입점되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제품들은 딸기잼, 포도버섯 분말, 볶음참깨, 다진 마늘, 비트즙, 찹쌀 조청, 부추 분말 등 12유형 22품목으로 ‘농부가 만든 유익한 만찬’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올 1월부터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하여 직접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하여 제품생산을 하고 있다. 특히 방자포도, 농부의 만찬, 딸기잼,

이지, 햇살담아 등이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선두주자로 익산 뿐만 아니라 용인·서천 로컬푸드매장에도 입점하여 익산의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과제주식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을 취득했고 들기름, 참기름, 잼, 과채가공품(분말), 액상차 등 5개 유형의 haccp인증취득을 앞두고 있어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마케팅 경쟁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농업인들은 학교급식 납품시 haccp 인증이 필수조건이므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할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가공창업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87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올해에도 가공창업보육교육 60명과 농업인대학 농산물 가공반 30명 등 총 90명의 인적 자원을 육성 할 예정이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볶음 팥종과 볶음참깨 제품을 생산하는 농부의 만찬이 남옥씨는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걸 알면서도, 가공 시설까지 마련할 여력은 없었는데 때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구축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매장의 확대추진과 발 맞춰 가공창업에 꿈이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여 소득이 증대될길 바라며 소비흐름에 맞는 상품성 있는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가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출범식'을 18일 개최했다.

군산시 “화학사고 ZERO”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출범식

군산시가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출범식을 18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협치를 통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채택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17명의 민·관·산·학의 거버넌스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화

화사고 예방·대응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및 유해성 정보 고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지도 개발, 화학사고 관련 홍보교육 활성화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 모현동, 민관합동 “재난기본소득 기본종계 기부”

장학재단에 500만원 쾌척

익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인 모현동에서 민관합동으로 재난 기본소득 기부를 집중 배부한 후, 각자 수렴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까지 해 칭송이 자자하다. 익산 모현동(동장 김우진) 전 직원과 봉사 협의회(회장 이종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길우)는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모아 익산시 장학재단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모현동은 배산택지 개발 지역과 옛 자연마을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등이다. 이번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분 현장 배부와 방문 신청 분 집중 기간에 동장단 봉사단체들이 참여해 모두 혼연 일체하며 원활히 배부하였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익산 모현동(동장 김우진) 전 직원과 봉사 협의회(회장 이종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길우)는 재난기본소득의 일부를 모아 익산시 장학재단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연휴 동안에 고현 초등학교내 체육관에서 현장 배부하며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지역화폐 이용 동참” 촉구

정현을 익산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및 기부의 혜택들이 익산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및 기프트카드 이용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익산시 예산으로 지급된 재난기

본소득 지원금 285억 원이 풀리면서 익산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수령하거나 기부할 때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면 익산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더욱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부방법에 있어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데, 이 경우 기부금이 국고로 환수된다는 점을 감안해 익산시 기부 플랫폼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18일부터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나 기프트카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하세요.”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면접촉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원서류 발급·신청 시 정부24와 '무인발급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24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이용해 전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 12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3월 20일부터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전자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서비스 선택 후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금융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90여 종의 민원서류도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7대(▲군산시청 ▲나운2동주민센터 ▲수송동주민센터 3대 ▲산도민원센터 2대 ▲조촌동주민센터 ▲소룡동주민센터 ▲늘푸른도서관 ▲군산세무서 ▲미룡동 평생학습관 ▲군산연인여객터미널 ▲비유항 ▲군산공화 ▲동군산병원 ▲군산의료원)이다. 설치지역별로 운영 시간 및 발급 가능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원 관련 서류발급(등기부등본·가족관계등본)과 업무시간 외 이용 가능 시간 및 서류를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출산장려 업무협약

익산시는 18일 민·관이 협력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모아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 서동로타리클럽, 한국부인회, 코코밀 S.O. 디루체, 눈에편한안경, 우리한개할세상 시정오피서, 동서내나지본점, 미령문구점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이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민·관이 함께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협약을 주도했다. 협약서에는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합인해택 등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약업체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재개

군산시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이달 초 황금연휴 기간(5.1~5.5.)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 이후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후 재개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운영 재개 시 읍면동별 생활 방역 담당자를 선정, 매 시간 프로그램실 자체소독 후 수강생들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이용자 대장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시휴강을 결정했음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감사 및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